

# 임진왜란의 재판? ... 새 프레임으로 정유재란 다시보기



정유재란 당시 명군이 왜를 정벌한 공을 기념해 제작한 병풍 '정왜기공도병' (전반부) 1도.

역사책의 매력은 무엇일까? 새로움에 대한 발골이다. 역사 보고(寶庫)의 가치는 세세한 사실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 역사에서 정유재란은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생소하다. 정유재란은 통상적으로 '임진왜란의 화의교섭 결렬로 재차 발발한 왜란(1597)'을 일컫는다. 임진왜란이 내륙으로 진격해 명나라까지 정복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 노골화한 것이라면, 정유재란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이 주목되었다.

흔히 임진왜란을 16세기 말 조선에서 발발한, 그로 인해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역사에 적잖은 파문을 남긴 '동아시아 세계 대전' 또는 '동아시아 7년 전쟁'이라고 부른다.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 이후 명나라와 일본 간 협상의 결렬로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다시 침범하면서 정유재란이 일어난 것이다.

정유재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전후의 역사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3국의 전략과 강화협상 등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한·중·일 역사학자 9명이 머리를 맞대고 정유재란을 다각도로 들여다본 책이 발간됐다. 정유재란 발발 7주갑(420주년)이 된 해인 217년 임진왜란 특성화 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이 주최했던 국제학술회의 지엄의 결과물이다.

김경대(고려대 CORE사업단), 천상승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국립진주박물관 엮음

(중국 산둥대학), 오타 히데하루(일본고시마 국제대학) 등 9명의 저자가 쓴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은 전쟁사를 넘은 외교, 경제, 건축 등 입체적인 결과물이다. 책은 당시 발표문을 정리 보완한 것으로 3국 학자들의 '합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책은 정유재란 당시 당사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각도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이렇다. 소유구(필리핀)에 입공(入貢)을 재촉하는 서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스페인 왕도 바닷길이 멀다 하니 내 말을 가버려 여기지 말라. ... 대명이라고 할 지라도 정도하려고 한다. 너희 나라도 빨리 본조에 복속하는 것이 지려 깊은 선택

일 것이다." 히데요시의 야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과 9편의 글이지만 책에는 울산성·순천성 전투와 명량해전 등 전쟁사 복원을 넘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 현지에서 벌어진 교섭과 명나라의 전쟁준비 규모, 조달 조치 등을 수록하고 있어 울산왜성 탐구 등 정유재란의 이면을 엿볼 수 있다.

정유재란의 참혹한 장면은 익히 알려져 대로다. "코베기로 상징되는 살육과 신체 훼손, 약탈, 납치 등"이 수시로 벌어졌고, 수많은 양민들이 죽임을 당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으로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전쟁은 끝났지만 그 의미는 임진왜란 못지않았다.

정유재란이 임진왜란 때와 다른 점은 당시 조선의 대응이었다. 일본군이 언제 내습할지 파악했으며 한강 사수 방첩을 세웠다. 승군·복수군, 북방 병출 징발 등 병력 확보책을 세웠다. 민심 안정 도모책도 제시했다. 조보(朝報)에 "적들이 나오더라도 내년 봄에는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던 것이다.

일본 측의 사정도 여러 부분에서 새로운

한·중·일 3국 학자 9명이 쓴 '합작'

전쟁사 넘어 외교·경제·건축 등 입체적 조명

울산성·순천성 전투 등 다양한 내용 담겨

사실들이 첨가됐다. 히데요시 최측근 고니시 유키나카와 가토 기요마사가 화전 양면으로 갈려 내분 상태인데다, 화의 조건으로 조선 왕자의 인질과 하3도 할양을 요구하는 등 명분 확보와 조선 점령을 겨냥했다.

전쟁 추이와 삼각의 전략 구도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당시 강화협상 과정에서 조선은 수동적이었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허남린 교수는 조선이 취한 일본과의 무타협주의와 조선의 굴복을 통한 철군 명령을 확보하기 위해 재침에 나선 일본의 선택, 최소한 희생으로 전쟁을 끝내려 한 명군의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책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악과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틀을 넘어 양국 관계를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21세기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극일(克日)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의 기본 전제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푸른역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정왜기공도병' (전반부) 4도. 병풍에는 명군(남병)이 황해를 건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416세월호참사 작가 기록단 지음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5주년이 되는 날이다. 3월 18일에는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분양소와 전막이 철거됐다. 지난 5년은 실로 격변의 시간이었다. 그동안 이어졌던 유가족의 단식, 도보행진, 집회, 탄핵 촉구 촛불시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 마침내 세월호가 인양되기까지 5년은 드라마틱했다.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가족들의 육성기록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이 펴낸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는 참사를 겪은 한 사람 한사람의 삶이 어떠한 궤적을 그렸는지 추적한 기록이다. 유가족이 겪은 지난 5년의 경험과 감정을 생생히 기록한 절절한 증언집으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민낯을 폭로한다. 저자인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은 그동안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학생이 육성을 기록하고 이를 널리 알리려왔다.

책에는 이제 그만 잊으라고 말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세월호 참사란 과연 무엇이며 그 사건은 과연 종결됐는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지 성찰할 기회를 준다. 작가기록단은 2018년 여름부터 416가족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을 만나기 시작했다.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5명의 기록자가 57명을 인터뷰했는데 단원과 희생 가족뿐 아니라 생존학생 가족, 희생교사 가족이 인터뷰에 가까이 참여했다.

5년이 흐르는 동안 유가족들의 고통의 시차도 제각기 다르다. 저자는 유가족의 특징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그들의 차이를 더듬어 살피는 것, 그 일로부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응답하는 사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창비·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가을 엘리 스미스 지음, 김재성 옮김

현존하는 가장 독창적인 영국 소설가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며 지난 2005년 맨부커상 최종후보에 올랐던 엘리 스미스의 '가을'이 출간됐다. 저자는 독특한 스타일의 글쓰기, 신화와 회화를 넘나드는 지적인 주제로 영국에서 독보적인 여성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소설 '가을'은 엘리 스미스의 사계절 4부작 중 첫 번째 작품으로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으며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에 선정됐다.

소설은 당대의 예술가들과 어울리던 지식인이자 작곡가인 대니얼이 늙은 동성애자라는 소문에 휩싸이면서 사건이 전개된다. 어린 엘리자베스는 학교 숙제를 위해 이웃 사람 인터뷰를 하러 노인집에 갔다가 그와 정신적 교감을 나눈다. 이십 년 후 엘리자베스는 대니얼의 영향으로 미술사를 전공한 대학강사가 되고, 백한 삶이 넘은 대니얼은 요양원에서 주로 잠을 자며 지낸다.

소설의 배경은 2016년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전후 시점이다. 근소한 격차로 여론이 나뉜 영국 사회는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지속된다. 대니얼이 문화적 축복 아래 보낸 20세기 중반과 2010년대 현재의 모습이 교차돼 보여진다. 삼십 대인 엘리자베스는 동네 풍경을 비롯 현재 영국이 어떤 분위기인지 생생히 전달한다.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독거노인'과 어엿한 사회인이 된 '비혼여성'의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적용돼도 무리가 없을 만큼 동시대성을 지닌다. 소설은 이웃과의 교감이 개개인 각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강한 불빛으로 사회를 밝힐 수 있는지 주목한다.

〈민음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내 인생의 징검다리, 기부 정미영 지음

'내 인생의 징검다리, 기부'의 저자 정미영씨는 부모의 유산을 사회 환원할 계기를 찾아 오래 하던 도서관 사서 일을 그만뒀다. 그가 첫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은 사회복지사였다. 그는 40대 초반부터 10여 년간 노인복지사업에 매진했다. IMF(외환금융위기)의 녹록한 현실에 부딪힌 지은이는 경기도 농촌에 내려가 살았다. 이후 11여 년간 자연과 더불어 그곳을 지켰고 60대 들어 1900여 평의 잘 가꾼 땅을 사회에 환원했다. 지난 2016년 봄 산문집 '멋진 노년의 길을 걷다'를 펴내며 글 쓰기에 도전한 그는 '노인복지사업'·'유산기부'·'글쓰기' 소망을 다 이루고 인생황금기를 맞고 있다.

책은 저자가 경험한 기부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아쉬웠던 부분을 있는 그대로 담았다. 방향을 잃은 사막에서 한발 한발 퇴로를 찾아 나선 것처럼 글의 시작은 한 기부자에게 놓인 절박함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모든 모금 단계에 책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 확대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책이 "일반인들에게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길 바란다"며 "실무자들에게는 모금업무에 발효된 한줌의 비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지내던 시절 지은이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여행적극을 선택 희망제작소에 기부해 1004인의 기부회원 모임(1004클럽)을 탄생시킨 제1호 기부자가 됐다. 박 시장은 책 추천사에서 "정미영씨가 그동안 걸어온 기부의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기부의 미래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부 지침서'라며 '기부자의 목소리로 들려주 『는 생동감 있는 내용은 기부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는 물론, 모금전문가, 단체를 위한 필독서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동쪽나라·1만5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